

뒷간과 화장실 미학



글 이 상 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 이사

고대의 분뇨처리

수렵을 하던 시대, 인간의 배설행위는 장소와 시간 전혀 구애받지 않았다. 넓은 대지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를 맡으며 방분(放糞), 방뇨(放尿)의 짜릿한 희열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배설물은 땅에 스며들거나 비에 씻겨 흐르거나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되었다. 어떤 때는 야생 동물이나 가축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경, 목축의 시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가 고정되면서 집단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연히 배설물도 늘어나게 되어 자연의 처리에만 맡길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배설물을 건조시켜 연료로 사용하거나 밭에 묻어 거름으로 썼다. 해변이나 강변에서는 배설물을 물에 씻어 보냈으며 목축민들은 가축에게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지상의 주거 또는 나무 위에 이러한 배설물의 처리를 위한 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농경생활과 분뇨의 이용

수렵이나 어로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이행해 가던 무렵 사람들은 원래는 비옥했던 토지가 연작(連作)을 해감에 따라 지력(地力)의 감소로 농작물의 수확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분뇨를 농경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강물에 흘려보내거나 땅에 묻어 그냥 버리던 더러운 분뇨를 논·밭에 비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분양법(糞壤法)은 중국에서는 이미 은나라 시대에 실시되었다. 은나라 시대의 문자인 갑골문 중에 ‘분서군전(糞西軍田)’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서군(西軍)이라는 지방의 밭에 똥(糞)을 뿌렸다는 뜻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분뇨를 농사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도의 화루라파트의 주민들은 옥수수과 감자 재배에 분뇨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 배 이상 되는 수확을 올렸다. 17세기 페르시아에서는 가축의 대소변을 농작에 이용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비료로 사용되는 대소변을 일컬어 ‘옥수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들은 사람의 배설물을 비료로 대지에 환원시키



▲고대로마의 하수처리시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발췌)



▲구입문의 협의회 사무국
(☎ 031-226-7001)

지난 몇 년간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 화장실과 전국 여러 곳의 화장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나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화장실에 대한 역사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본 내용은 '호모토일렛(Homo Toilet)'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편집자)

- 다음호에 계속

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유목민들도 밭에 가축의 분을 뿌리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농사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분뇨만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농사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인분을 농사에 이용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그것이 단지 더럽거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 문화권 주변의 나일강과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의 정기적인 범람 때문에 언제나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

로마제국은 잘 정리된 상·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제국의 시민들은 현대인들처럼 분뇨를 하수도에 버렸다. 따라서 당시 고대 로마



▲고대로마의 목욕탕 유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분뇨를 하수도에 흘려 보냈다.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아주 발전된 분뇨처리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 로마제국은 멸망했고 그 후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분뇨를 물에 씻어 보내는 방법을 그다지 즐겨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시인 박토르 위고(1804~1885)는 “로마에 하수도가 생기면서 전원은 병들고 파멸해졌다. 그 결과 로마는 이태리의 하수도 속에 침전했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멀리 떨어진 상수원 - 샘이나 개곡물 - 에 13개의 상수도를 설치했다. 이 수도의 깨끗한 물은 공공의 급수장(給水場)은 물론 11개소의 공중 목욕장, 1,300개소 이상의 공공 분수대와 150개소의 수세식 공중변소에 이용되었다. 로마시대의 변소는 요즘 같은 인공 수세식이 아니고 자연 수세식이었다. 즉 변기의 아래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여 오물을 씻어 내리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汚水)는 대하수도로 흘러들게 되어 있었다. 공중변소는 칸막이가 없고 여러 개의 변화가 이어져 있어 사람들은 그곳에 느긋하게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 제국 로마의 자연은 점차 그들의 오물로 황폐해지고 있었다.